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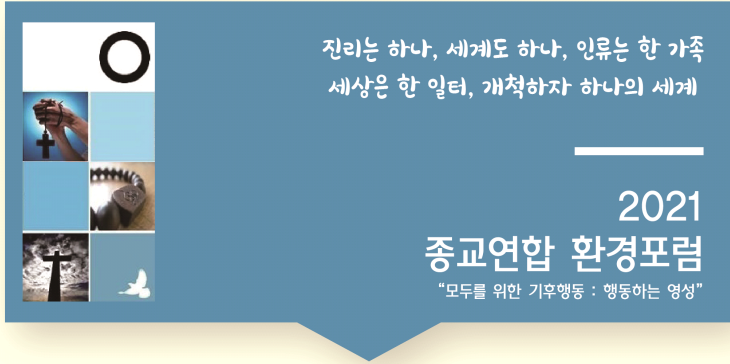
2021 종교연합 환경포럼 자료집



주최: 원불교 교정원 국제부

주관: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원불교 UN 사무소, 원불교 환경연대

후원: 종교연합 후원재단, 원불교신문, 원음방송, 한울안신문



행사일정 2021.05.22(토) 09:30-13:00

행사장소 원음방송 스튜디오

행사포맷 zoom 온라인 행사

참여방법 원포털에 공지(won.or.kr)

주최 | 원불교 교정원 국제부

주관 |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원불교 UN사무소, 원불교 환경연대

협력 | (사)한울안운동, 종교연합청년단

문의 | Tel. 02-6960-8918 Email, wonint@won.or.kr

후원 | 종교연합 후원재단 원불교신문 WBS 원음방송 한울안신문

기타 | 사진 참여 신청 시 이메일로 관련 자료 보내드립니다(원포털 참조 or 문의 요청)

2021 종교연합 환경포럼

기후위기는 해마다 인류에게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인들도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본 포럼에는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다양한 종교인들이 참여하여 종교연합 기후행동 촉구를 위한 대화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법문

오도철(원불교 교정원장)

주요 연사

수잔 헨더샷(Interfaith Power & Light 대표), 정상덕(참여연대 운영위원), 오광선(원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김용휘(한국종교인평화회의 생명평화위원장), 조은혜(원불교 환경연대 사무처장), 유정길(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 유미호(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센터장), 맹주형(천주교창조보전연대 실행위원), 민정희(국제기후종교인네트워크 사무총장), 정선희(한울안운동 사무국장), 원현장(원불교 인도 델리교당 교무)

2021 종교연합 환경포럼

Zoom 접속 링크

<https://zoom.us/j/4636469182>

(회의실 ID: 463 646 9182)

일정	주요 내용	발표자/패널
09:30-09:40	• 오프닝 법문 “기후변화와 종교의 사회적 책임”	오도철(원불교 교정원장)
09:40-10:00	• 주제발표 “모두를 위한 기후행동 : 행동하는 영성”	수잔 헨더샷(Interfaith Power&Light 대표)
10:00-11:00	• 종교연합 기후행동 대담회 “기후위기 시대의 종교연합운동 : 행동하는 영성” - 모두를 위한 종교연합운동(종교와 기후 이슈) - 영성과 깨달음을 통한 기후행동 방안 - 향후의 과제	사회 : 오경석(원음방송PD) 패널 : 정상덕(참여연대 운영위원) 유정길(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 김용휘(한국종교인평화회의 생명평화위원장)
11:00-11:15	• 휴식	
11:15-12:00	• 기후행동 실천 사례 발표 (국내) “원불교 (사)한울안운동 사례” (해외) “에코철학 : 인도 라다크 에코투어리즘 사례” (국내) “기독교 살림 연구소 사례”	정선희(한울안운동 사무국장) 원현장(원불교 인도 델리교당 교무) 유미호(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센터장)
12:00-12:10	• 휴식	
12:10-12:55	• 기후행동 종합토론 “지속가능한 기후행동 실천을 위한 협력 제안” - 종교환경회의의 활동 영상 시청 - 종합토론	사회 : 조은혜(원불교 환경연대 사무처장) 패널 : 맹주형(천주교창조보전연대 실행위원) 민정희(국제기후종교인네트워크 사무총장)
12:55-13:00	• 클로징 법문 “모두를 위한 기후행동”	오광선(원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상임고문

오프닝 법문

“모두를 위한 기후행동 : 행동하는 영성”

기후변화와 종교의 사회적 책임

반갑습니다.

‘행동하는 영성’이란 주제로 열리는 ‘2021 종교연합 환경포럼’의 선한 영향력이 포근하고 생명력 있는 바람으로 지구촌 구석구석에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에 살고 있음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인류의 스승들이 이미 오랜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며 가르쳐 주신 교훈은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서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기에 그 관계를 사랑과 자비로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근세에 이르러 이러한 가르침을 소홀히 하고 애써 외면하면서 ‘자본’을 우리 삶의 맨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가 굳게 믿고 쌓아 왔던 문명의 진보라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모래성처럼 허무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서야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인간의 욕망과 돈에 대한 집착은 지구 생태계를 무참히 파괴하였고, 지금 우리는 그 과보를 받고 있습니다.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서는 대각을 이루신 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시며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 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樂園)으로 인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정신개벽 운동은 ‘행동하는 영성 운동’의 핵심입니다. 행동을 하게 하는 강력한 추동력은 진리적 종교를 믿는 신앙의 힘일 것입니다. 이 힘은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상생의 환경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성취도 보장할 것입니다.

원불교의 신앙은 사은(四恩)에 대한 믿음과 보은행(報恩行)을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연기(緣起)의 기본 속성이 은혜의 관계임을 밝히고, 믿음은 인간의 욕망과 분별심을 정화하여 인류 문명의 선한 에너지가 되게 하고, 개인의 업(業)을 선업(善業)으로 지어가게 합니다.

천지은·부모은·동포은·법륜은의 사은이 모두 하나의 은혜로 모아지지만 특히 천지은은 기후환경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하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생명있는 것들은 하늘의 공기가 있으므로 살고, 땅에 의지하고 살며, 해와 달의 빛과 열이 있어 살며, 풍·운·우·로(風雲雨露)의 혜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의 광대무량한 은혜입니다.

이 천지에 대한 배은(背恩)은 피은·보은·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입니다. 안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인류는 상생과 자리아타의 윤리를 가치의 중심에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보은의 길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지구를 살리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실천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원불교인들은 천지보은 운동에 열성을 다해야 합니다.
 -가난·무지·질병·전쟁을 이겨내기 위한 모든 일에 창의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2. ‘덜 먹고 덜 쓰기 운동’에 함께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덜어내고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소비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3. ‘물 절약 운동’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은 언제까지나 풍족할 수 없습니다.
4.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늘 관심을 가지고 편리함만을 쫓지 않아야 합니다.

- 편리함의 댓가는 환경오염과 파괴를 불러올 것입니다.
- 5. 나무를 심고 숲을 보호하는 운동에 함께해야 합니다.
 - 지속가능한 미래는 자연과의 공존에서 시작됩니다.
- 6. 백신 나눔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 코로나 백신과 의료복지 나눔에 함께해야 합니다.
- 7. 우물 파주기 운동에 함께해야 합니다.
 - 깨끗한 물은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의 시작입니다.

과거시대의 종교는 고요함 즉 '정(靜)을 추구했다면, 미래시대 종교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대오각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작은 행동이 타인과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계성 회복이 절실합니다. 좋은 말씀은 경전에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곳은 우리 각자가 숨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용맹한 전진심과 강한 실천력으로 기후행동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실천이 모이고 모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광 선
 원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원불교 의왕교당 주임교무

클로징 법문

“모두를 위한 기후행동 : 행동하는 영성”

종교연합 환경포럼을 마치며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오광선교무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각 종교계가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저는 도심 뒷산의 등산로를 따라 한참을 걸어가다 십여미터 앞에서 청솔모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 주변을 살피며 땅에 내려온 그 청솔모는 아주 조그맣게 흐르는 개울가에서 잠시 동안 목을 축이다가 다시 재빠르게 나무 위로 올라갔고, 그 모습을 다 지켜본 후에야 저도 가던 길을 갈 수 있었는데요.

수많은 등산객들이 다니는 길이라 그 근방을 터전 삼아 살고 있을 청솔모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물 한모금 편안하게 먹기가 여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지금처럼 말끔하게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그 청솔모는 적어도 수시로 지나다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모른체 좀 더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었겠죠.

우리는 맑은 공기 마시며 등산하고 산책하기 편리하고자 숲에 길을 내고 잘 다듬어 놓았지만, 애당초 그 산속의 주인인 청솔모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 말씀드린 거지만 이처럼 인간의 편리와 자원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숲과 산림 파괴는 각종 생명체들의 서식지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와 각종 해양 폐기물, 무단방류 되는 방사능 오염수와 화학약품들, 그리고 화석

연료를 태워서 내 뿜는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와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탄소는 우리의 소중한 강과 바다, 산과 들 그리고 대기질을 망가뜨리고 기후 질서를 망가뜨려서, 종국에는 우리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소유하고, 좀 더 누리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인간의 욕망이 심각한 기후위기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결국에는 인간과 자연생태계가 공멸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듯 생태 절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가, 당면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지구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시급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나서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인류의 영성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책임을 맡고 있는 종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종교인들은 비록 믿어 받들고 의지하는 신앙처는 서로 다르지만, 생명을 존중하고 우리들 존재의 근원이 되는 이 천지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공경심만큼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공기와 물, 식물과 동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이고, 이 천지자연이 바로 천주님이요 하느님이요 부처님이요 범신불사은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무한한 경외심과 공경심을 가지고 모시고 받드는데 앞장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당면한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지구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역할과 책임이 우리 종교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천지자연을 자기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귀의처로 여기며 살아가는 마음과 행동이 온전히 하나 될 때, 우리가 바라는 종교간에 연대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고, 우리 인류와 모든 생명체들이 온전히 하나로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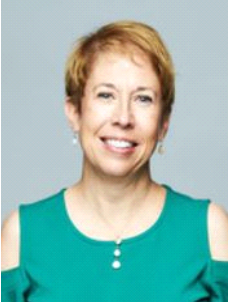
일찍이 우리 교단의 3대 종법사이셨던 대산종사께서는 세계종교UR 설립을 제창하시면서 종교연합을 자애로운 어머니의 역할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지구라고 하는 자연생태계는 개발과 발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부추기는 정치경제 시스템에 의해 무한경쟁의 각축장이 되어 무수히 파헤쳐지고 훼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운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 이른 것이죠. 그 자애로운 어머니의 역할을 다름 아닌 우리 종교가 나서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념이나 말뿐만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이 천지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우치고 권면하고 또, 스스로 앞장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종교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자연과 인간이 한데 어우러지는 온전한 지구공동체가 길이 길이 보존되고 유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가자는 부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v. Susan Hendershot
 President, Interfaith Power & Lights
 Co-chair, Executive Committee for the RE-AMP Steering Committee

기조 연설

“모두를 위한 기후행동 : 행동하는 영성”

국문 버전

감사합니다.

21년 전 지구 온난화에 대한 종교적인 대응으로 설립된 미국 내 비정부기구인 Interfaith Power & Light를 대표하여 종교연합 환경 포럼에 초청되어 여러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단체의 미션은 신앙심이 깊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대담하고 정의로운 행동에 나서도록 고무하고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무성한 자연생태계와 상호연관된 올바른 관계에서 인간이 사는 안정된 기후를 상상합니다.

Interfaith Power & Light의 대표가 되기 전에, 저는 미국 아이오와에 있는 지역 신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독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가장 걱정했던 문제는 기아 문제였습니다. 제가 섬긴 성도들은 노숙자 쉼터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어려운 가정에게 나눠줄 음식을 모으며, 국내의 기아 구호를 위한 기금을 모으는 등 우리 지역 사회의 현지 기아대책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족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급자족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옹호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재활용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집을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지역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과 같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작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산불로 인한 농작물 파괴, 그로 인한 전 세계적인 식량난과 곡물가격 상승, 그리고 자원 부족에 따른 갈등의 증가 등과 연관 짓는 식량에 대한 지정학적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은,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식견이 넓어짐에 따라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제 아들과 그 뒤를 따르는 세대

들은 훨씬 더 많은 가뭄, 산불, 거대한 허리케인과 태풍, 그리고 다른 기후 재앙을 겪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COVID-19 팬데믹, 기후 변화, 그리고 인종 차별 및 경제적 불평등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건강, 환경, 그리고 정의의 교차점에 대한 이해를 전체적으로 심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COVID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세계 시민들에게 효과가 없는 것을 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기회가 있다. 우리는 기존의 불평등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든 것이 포함되고, 가치가 있으며, 모든 것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진 미래를 만들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가 번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2000년에 Interfaith Power & Light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신도들과 신앙 공동체들은 우리의 종교적인 가르침의 중심으로서 지구와 환경을 돌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주요 전통 종교들이 적어도 두 가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소명과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지구를 돌보는 소명입니다.

기후 변화는 이 두 가지, 즉 이웃과 지구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함께 행동하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는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계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에서 통합시키는 것으로 대화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 우리의 가치관에 기반한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이러한 논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Interfaith Power & Light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도록 격려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프로그램인 "Faith Climate Action Week"를 통해서입니다. 기후와 환경을 주제로 한 예배와 설교, 영화 등이 함께하는 4월 지구의 날 주간에는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올해 주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식량 불안과 인종 차별, 기후 위기가 교차

하는 도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1년에 개최된 행사에는 미국 전역에서 1500명 이상의 신도들이 참가했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종교의 역할인 우리의 깊이 있는 가치들을 찾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가치인 사랑, 연민, 정의, 희망, 용기에 호소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에 바탕을 둔 세계는 모두에게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퍼시픽 루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신학자 Cynthia Moe-Lobeda는 "도덕적인 가치들은 사회가 도덕적이 되려면 사회의 진행 형태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가치는 종교적 믿음에 기초한다. 따라서 종교는 본질적으로 작용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Moe-Lobeda, *Resisting Structural Evil*, Forth Press, 2013, p. 203)

Interfaith Power & Light는 미국 전역의 신앙인들에게 정책 변경 지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음식 선택과 가정과 예배 장소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등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큰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부 정책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재생 에너지 지원과 화석 연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 전환 지원을 포함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계획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연소 산업에 의한 공해로 인해 부담이 컸던 최전선 및 환경 정의 공동체들에게도 자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미국은 최근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했고, 미국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구촌에 약속하는 바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탄소배출량을 낮추는 연방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Interfaith Power & Light는 정책 입안자들이 과감한 목표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 종교 및 환경단체의 파트너로 일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화석 연료 인프라를 규제하고, 농업과 나무 심기가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유틸리티 부문, 운송 부문 등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모색합니다.

기후 변화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오염원 또는 홍수나 산불과 같은 극한의 날씨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이주할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일 때, 이 문제는 환경 정의이자 경제 정의의 문제가 됩니다. 기후 변화는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 그리고 미래세대가 문제 해결을 떠안게 만드는 세대정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Interfaith Power & Light는 정의와 형평성을 우리 활동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후 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어나야 하는 전환과 변화에 모든 지역사회를 뒤쳐지게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만큼 깨끗한 에너지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 오염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 사람들은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깨끗한 공기를 마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화의 출발점은 공감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묶이고 얽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한 것뿐 아니라, 우리는 지구와 그 생물체, 그리고 자연생태계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전체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 다른 이들의 고통과 기쁨을 보고 느끼는 것, 우리가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변화가 우리 세계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Rabbi Abraham Joshua Heschel은 "종교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요구된다는 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기후 위기의 경우, 우리는 지역사회, 가족, 국가, 인종, 그리고 자연생태계에 닥친 참상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후 변화가 우리의 다양하고 다양한 신앙 전통이 수십 년 또는 심지어 수세기 동안 작업해 온 많은 다른 문제들과 교차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는 곧 배고픔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 인구 이동, 그리고 전 세계 난민 위기, 재난 구호, 그리고 세계적인 분쟁 해결 과정들입니다.

Thich Nhat Hanh 스님은 그의 저서 '지구에 보내는 사랑의 편지(Love Letter to the Earth)'에서 "이것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일어나야 할 혁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때, 우리와 지구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가짐(챙김)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 각자의 고통은 완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의 고통에 의해 휩싸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과 존경으로 지구를 대할 동정심과 이해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균형을 회복하면, 지구로 균형을 회복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대한 걱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행복에 대한 걱정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지구를 치유하는 것과 우리 스스로 치유하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Thich Nhat Hanh, *Love Letter to the Earth*, Parallax Press, 2013, p.56)

우리의 도덕적인 기회는 무엇이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위급한 위기인지에 대한 리더십을 제공하는 정신과 양심을 가진 신앙 공동체와 개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희망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한 희망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이로온 행동을 하게하며,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럼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축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영문 원문

Gamsahabnida, Thank you. It is my honor to be invited to take part in this Interfaith Environment Forum and to greet you on behalf of my organization, Interfaith Power & Light, which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based in the United States and founded 21 years ago as a religious response to global warming. The mission of Interfaith Power & Light is to inspire and mobilize people of faith and conscience to take bold and just action on climate change. We envision a stable climate where humans live in right and just relationship, interconnected with a healthy, thriving, natural world.

Before becoming president of Interfaith Power & Light, I was an ordained, Christian minister serving local congregations in Iowa, in the United States. The issue I was most concerned about was the issue of hunger. The congregations I served supported local hunger ministries in our community, such as serving meals in homeless shelters, collecting food to be distributed to families in need, and raising money for both domestic and global hunger relief. We were also working as advocates to support policies that would lift families out of poverty and support self-sufficiency.

I was not paying attention to the issue of climate change. My family was recycling, we had made our home more energy efficient, and we were taking other small steps to protect the environment such as picking up trash in a local park.

But then, I read an article on the geo-politics of food, which made the connection between the destruction of crops due to drought and wildfire that

were fueled by climate change, the resulting global food shortages and higher grain prices, and the rise of conflict that was driven by scarcity of resources. What I realized in that moment was, if I wanted to solve the problem of hunger, I needed to work to solve the climate crisis.

And I learned something else as my knowledge about the issue increased: my sons and the generations coming after them will suffer even more droughts, wildfires, massive hurricanes and typhoons, and other climate disasters unless we take bold action today.

In the past year, we have collectively deepened our understanding of the intersection of health, the environment, and justice through the intersected crises of the COVID-19 pandemic, climate change, and racial and economic injustice in the United States.

Now we are preparing for a post-COVID future. We have an opportunity to see what has not been working for many global citizens, and to seek a new path forward. We have an opportunity not to go back to existing inequalities, but to create a future where all are included, all are valued, and all have what they need in order for their families and their communities to thrive.

When Interfaith Power & Light was started in the year 2000, many congregations and faith communities were not talking about care for the earth and our environment as being central to our religious teachings. And yet we know that all major religious traditions share at least two things in common: a calling to

care for our neighbors, especially those who are most vulnerable in our societies, and a calling to care for the earth, which we all share.

Climate change impacts both of these—our neighbors and our earth—and so it should be an issue that unites us to act together for change. The religious community can approach this conversation from an ethical and moral standpoint, based in our values, in order to transform the dialogue from what divides us to what unites us.

One of the ways that Interfaith Power & Light encourages people of faith to come together is through our program “Faith Climate Action Week”. This is an annual event held during the week of Earth Day in April, with climate and environment –themed worship resources, sermons, and films. This year the theme focused on the intersecting challenges of food insecurity, racial injustice, and the climate crisis, with an emphasis on how people of faith can respond. More than 1,500 congregations across the U.S. participated in this event in 2021.

Change comes when we search our deeply held values, which is the role of religion. Our faiths speak to our deepest values, values of love, compassion, justice, hope, and courage. A world based in these values would be a just and sustainable world for all.

Christian theologian Cynthia Moe-Lobeda, who teaches at Pacific Lutheran Theological Seminary, states, “Moral values must be brought to bear in determining the ongoing shape of society if that society is to be moral. For many people, moral values are grounded in religious belief. Religion, therefore, inherently comes into play.” (Moe-Lobeda, *Resisting Structural Evil*, Fortress Press, 2013, p. 203)

Interfaith Power & Light teaches people of faith across the United States how to become advocates for policy change. We believe that not only do we need to be mindful of our personal lifestyle choices, such as our food choices and how much energy we use in our homes and places of worship, but we must also advance government policies that can bring larger structural change. Currently we are advocating in support of President Biden’s infrastructure plan, which will include support for renewable energy and for a just transition for workers who have been employed in the fossil fuel industry. It

will also bring resources to frontline and environmental justice communities that have been overburdened by pollution by the citing of fossil fuel burning industries,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The United States recently rejoined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set new targets for lower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cross the country. But we know that in order for the United States to deliver on the promises that we make to the global community, we need to pass federal legislation that will lower our national carbon emissions. That is why Interfaith Power & Light works as a partner to both religious and secular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n order to push policy makers to set bold targets; and to explore multiple strategies for lowering emissions, including in the utility sector, the transportation sector, by blocking new fossil fuel infrastructure, and by researching how agriculture and tree planting can be part of the solution.

Climate change is an issue of justice. It is an environmental justice and an economic justice issue, when those who are suffering the greatest impacts are those who are poor and who lack the resources to relocate away from sources of pollution or areas hardest hit by extreme weather, such as flooding or wildfires. It is a generational justice issue when our children, our grandchildren, and future generations are tasked with solving a problem they did not create.

That is why Interfaith Power & Light centers justice and equity in our work. We know that it not only matters WHAT we do, but also HOW we do it. We cannot leave whole communities behind in the transition and transformation that needs to happen in order to meet our climate commitments. Those who have been made poor need access to clean energy just as much as those who are wealthy. Those who have been burdened by air pollution and the resulting health impacts need to be assured that they will breathe clean air, for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The starting point for this conversation is empathy. It is seeing that we are bound together, woven together—that what impacts one of us impacts all of us. That as well as being bound to one another, we are interconnected with the earth and its creatures, and to natural systems. It is in seeing ourselves as part of a whole, of seeing and

feeling the pain and the joy of others, that we become transformed. It is this spiritual transformation that has the capacity for effecting true change in our world.

Rabbi Abraham Joshua Heschel wrote, “Religion begins with a consciousness that something is asked of us.” In the case of the climate crisis, we have seen firsthand the devastation that has been wrought on communities, on families, on nations, on species, and on the natural world. We also understand that climate change intersects with many other issues that our many and varied faith traditions have been working on for decades, or even centuries: not only hunger, but access to clean water, population displacement and the global refugee crisis, disaster relief, and global conflict resolution.

The Buddhist teacher Thich Nhat Hanh, in his book *Love Letter to the Earth*, wrote: “There is a revolution that needs to happen and it starts from inside each one of us. When we change the way we see the world, when we realize that we and the Earth are one and we begin to live with mindfulness, our own suffering will start to ease. When we’re no longer overwhelmed by our own suffering, we will have the compassion and understanding to treat the Earth with love and respect. Restoring balance to ourselves, we can begin the work of restoring balance to the Earth.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concern for the planet and concern for ourselves and our own well-being.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healing the planet and healing ourselves.” (Thich Nhat Hanh, *Love Letter to the Earth*, Parallax Press, 2013, p. 56)

Our moral opportunity is for faith communities and individuals of spirit and conscience to provide leadership on what is an existential crisis—the most urgent and compelling challenge of our day. In order for this to happen, we need to be grounded in hope, an active hope that empowers us to act, to take beneficial action, to co-create the future we envision. Our future is not already written; we have the power to bring about the change that is needed. The time is now.

Gamsahabnida, Thank you. Blessings as you participate in this important forum.

Biography

Rev. Susan Hendershot has served as the President of Interfaith Power & Light since 2018. Prior to becoming President of The Regeneration Project and Interfaith Power & Light, Rev. Hendershot served as the Executive Director at Iowa Interfaith Power & Light for seven years. She is ordained in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with an M. Div. from Emory University in Atlanta, Georgia, a B.A. from Bethany College in Bethany, West Virginia, and a certificate in Spiritual Direction. Prior to Iowa IPL, Rev. Hendershot served as a pastor in both Disciples of Christ and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s, focusing on social justice ministries. She also served as the first Heartland Field Organizer for the ONE Campaign on global poverty. Currently Rev. Hendershot serves as co-chair of the Executive Committee for the RE-AMP Steering Committee, a network of over 170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Midwest. Rev. Hendershot believes that climate change is a moral issue, disproportionately impacting those who are most vulnerable in our world.



정 상 덕
 참여연대 운영위원
 원불교 영산 성지 사무소장

대 담 회

“모두를 위한 기후행동 : 행동하는 영성”

기후위기 시대의 종교의 역할 : 원불교는 초록입니다

1. 원불교 개혁 사상 두 가지.

※ 개혁 운동은 동시성, 양면성으로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

- ① 미신-우상편견이기주의 등 정신의 자주력 회복으로 서의 ‘정신 개혁’ 운동.
- ② 인류 평화와 상호 공존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 개혁’ 운동.

2. 일체 생령과 한 몸 한 맘이라는 ‘생태 영성 운동’

※ 원불교의 개교 동기는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다.

- ① 발전의 이념에서 ‘순환’의 생명 운동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에 대한 성찰과 실행
- ② 편리를 위한 파괴에서 ‘공존’의 은혜 운동으로 모두를 위한 공익정신과 공도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3. 농촌을 살리자. 그 속에 새 삶이 있다.

※ 생명을 살리는 현장을 찾고 가꾸자.

- ① 지구는 지구 자체가 회복 능력이 있다.
- ② 자연에게서 ‘겸손’과 ‘절약’을 배우자.
- ③ 텃밭 가꾸기, 주말농장 운영 등이 주택, 자동차 갖기 처럼 일어나서 자급자족이 되어야 한다.

4. 환경운동은 시민참여와 강력한 ‘저항운동’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

※ 인간의 탐욕, 이기적 국가주의, 자본 폭력과 맞서야 한다.

- ① 원불교 환경운동인 탈핵과 에너지 전환운동, 나무심기 운동, 햇빛발전 사업 등에 회원으로 적극 참여하자.
- ② 함께 잘 사는 평화운동, 인간 중심이 아닌 생명의 존엄은 중심하는 인권운동 등과 연대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자.
- ③ 건강한 생명 운동에 앞장서는 종교, 시민사회, 선각자들과 함께 행동하자.

5. ESG경영의 선구자였던 원불교, 다시 개혁하자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 ① 환경(Environment): 기업의 자원 절약, 재활용 촉진 등 환경 보호 활동, 탄소 배출, 기후변화, 환경오염, **초기교단의 금주금연운동, 보은미저축**
- ② 사회(Social) : 고용평등, 지역사회기여, 제품안전, 사회적 약자의 지원과 노동환경 개선 등의 사회공헌 활동, **초기교단의 남여권리동일**
- ③ 지배구조(Governance) : 투명경영, 사업윤리, 부정부패척결, 법과 윤리를 준수해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지배구조 등

실시품 14장

불법연구회의 조직과 계획과 실천은 나라를 맡겨도 능란히 처리하리라.

현대사회에서는 성장만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다. 기업을 평가할 때도, 투자할때도 재무적인 성과만을 보고, 회사실적만을 보고, 숫자만 들여다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가 중요.

돈을 얼마나 쓰고 이익이 얼마인지 뿐만 아니라 경영을 얼마나 투명하게 했는지,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는지 하는 것이 중요.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원불교가 답해야 한다.



유 정 길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

대 답 회

“모두를 위한 기후행동 : 행동하는 영성”

생태, 생명평화운동은 종교의 근본을 찾는 운동이다

환경운동은 생명살림을 위한 메시지이다.

불교는 콩심은 데 콩나고 팥심은 데 팥난다는 인연과 보(因緣果報)의 이치를 엄격하게 믿는 종교이다. 원인 행위가 있으면 예외도 없이 그 결과(과보)가 있다고 믿는 가르침이다. 나쁜 일을 해놓고 좋은 결과를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인연법에 맞지 않는 도둑의 심보이다. 환경위기라는 결과는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가 원인이 된 과보이다. 그러면 어떠한 어리석은 행위일까?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정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환상, 시간간격을 두고 모든나라가 미국같은 풍요의 사회가 될 것이라는 미망, 대량의 자원채취와 물건생산이 발전이라는 허상, 풍요로운 소비가 행복이라는 미혹, 생존 경쟁, 약육강식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은 대립과 경쟁이 필연적이라는 무지, 사람이 지구 모든 생명의 지배자라는 어리석은 행동에서 발생한 과보인 것이다.

환경위기는 총체적 과보중에 가장 약한 고리에서 드러난 과보의 시작일 뿐이며 드러나지 않은 더 큰 과보가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불교에서 환경위기는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며, 이어 닦칠 더 큰 과보를 앞서 알리는 전령사이자 신호(Signal)인 것이다. 환경위기의 해결이 위급하고 중요하지만 이 증상만의 해결이 아니라 더 깊이 근본적인 해결에도 동시에 대응해야한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그래서 <총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국가수준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거대한 전환>을 기획하는 것이다. 위기 자체의 해결과 더불어 그 너머로, 원인을 제공한 수많은 어리석은 행동의 전환을 추구하고, 인간과 자연의 죽임사회를 생명살림의 사회로 바꾸는 것이 녹색종교가 궁극에 추구하는 전환이다.

종교의 근본자리를 찾게하는 환경문제

환경운동은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는 일과 자연을 파괴한 인간에 대해 <새로운 가치관 각성 운동>, <생활양식 전환운동>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환경운동이 동시에 펼쳐나가야 할 중요 영역이다. 이중 <생활양식의 전환>은 생명운동의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종교운동, 종교환경운동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환경운동에 있어서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는 활동과 인간이 의식의 변화, 또한 새로운 가치관 각성 운동과 생활양식 전환운동은 핵심적인 실천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소육지족의 삶과 나누는 삶이 바로 생태적 생활양식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돈과 물질중심적 사고를 거슬러 살기를 강조하는 집단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종교이다. 기독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고, 자신의 것을 버리고 따라 오라고 가르치고 있다. 또한 버리고 버려 무소유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실제 오늘날 종교는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고 있으며, 예수님과 부처님을 거간꾼으로 활용하여 돈과 출세의 도구로 이용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활용하고 있다.

각 종교의 근본가르침과 생활양식은 개인의 이익과 이윤동기를 뛰어 넘을 것을 권유하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종교는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탐욕을 뛰어넘어 선의지를 조직화 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은 종교조직이다. 따라서 모든 종교가 그 본연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실천적 삶을 살도록 한다면 오늘날 심각한 위기의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종교환경운동은 중요한 영역이며 또한 이들 종교간의 연대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문제는 천박한 유물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경건과 탐욕에 대해 절제, 자발적인 가난, 주체적인 청빈, 그리고 영성과 깨달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가치는 인류가 쌓아온 오랜 종교의 전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산이다. 오늘의 환경적 실천은 그대로 종교적 실천과 맞닿아있다. 환경운동에서 운동성과 종교성을 전혀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다 철저한 종교적 수행과 실천이 환경위기시대에 윤리적 실천과 일치한다. 과거의 종교운동은 운동성과 종교성사이에서 갈등이 있어왔지만 종교의 환경운동은 그러한 갈등이 없을 뿐 아니라 사회를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인권이나 통일 평화등의 사회문제는 보수과 진보의 이념적 차이가 있어 서로 함께 하지 못하는 갈등의 골이 있지만, 환경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없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활동이며, 나아가 종교간의 화합과 화해를 위해 공통의 실천적 연대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매개가 된다.

다시 말하지만 종교는 많은 신자들로 조직화되어있다. 그래서 종교간의 동시적인 실천을 통해 큰 사회변화를 이룰수 있는 우리사회의 최대의 조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3.1운동처럼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종교간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이어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종교인과 종교가 큰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생태적 가르침이 신앙과 결합되어 희망과 꿈을 이루는 활동에 나선다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녹색운동의 3가지 차원

오늘날의 시장과 경제는 1-2년의 단기순이익이 동력인 시스템이며, 오늘날의 정치는 4-5년의 선거기간만의 인기를 목표로 하는 짧은시간 시스템이다. 그러나 녹색운동은 2-300년 뒤 미래세대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잘못된 생명들의 죽음을 변호하는 활동, 약자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운동, 어리석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받는 자기 고통에서 해탈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다.

이에 따라 3가지의 활동을 기조로 한다. 하나는 오늘날 파괴적 사회시스템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저항하며, 지연하는 활동>이다. 무분별하게 4대강을 개발하고, 설악산과 지리산에 케이블카나 산악열차를 건설, 특정한 정치이익을 위한 공항건설을 반대한다. 30년간의 전력공급을 위해 10만년 이상 미래세대에게 방사능의 고통을 주는 원자력발전을 중단하게 하며, 화석연료의 의존을 줄이고 태양광이나 풍력등의 재생에너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산림벌채를 반대하고 여성의 권리와 약탈적인 금융자본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조직하고 강연회나 교육활동을 전개하며 실태를 알리는 활동을 한다.

두 번째의 운동은 <토대를 바꾸는 생명지속사회의 대안 행동>이다. 생명시스템이 유지되도록 바른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행동전술이다. 왜곡되거나 잘못된 것을

평등과 호혜의 원칙으로 정의롭게 바로세우고, 균형을 만드는 생명사회운동이다. 공유재를 보호하고 확대하며, 지역사회, 자연의 권리, 미래세대의 권리를 공인하게 하며, 환경정책에서도 사전예방원칙을 수립하고, 위기를 만든 GNP를 해체하여 대안적인 지표로 바꾸는 운동 등이다. 또한 생태공동체운동, 공유사회운동, 농적문화를 근간으로 마을공동체운동, 쓰레기 제로운동, 지역통화, 기본소득운동, 직접민주주의 등의 생명중심의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모든 대안적 활동 등이 녹색운동이다.

세번째 운동은 <인식과 가치관 바꾸기 운동>이다.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고, 가치관을 바꾸는 운동이다. 자신이 세상과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며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나아가 시간적으로 조상들과 미래세대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일이다. 소유를 통한 행복이나, 물질과 권력의 상승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쟁이라는 낡은 개념을 뛰어넘어, 이웃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며 자연의 풍요가 자신의 풍요임을 깨닫고 협동하고 협력하며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다. 나아가 살아 숨쉬는 지구와 생명의 상호일체감을 느끼는 정신활동인 것이다.

이 녹색운동은 사회변화(사회운동)와 자기변화(수행)를 동시에 실천하며, 자연과 생물의 권리, 미래세대 권리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녀야할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궁극에는 연결된 사회속에서 자연과 타인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임을 깨닫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각성운동이다.

녹색종교운동의 동력 <감사>와 <은혜>의 깨우침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가르침은 녹색종교의 제일의 가르침이다. 내 옆의 이웃들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못 생명들이 존재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으며, 바람과 구름, 비와 풀벌레들의 <천지자연의 은혜>와 이들 생명 <덕분에>내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고마움>을 갖는 것이 녹색종교운동의 동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과 행동은 조금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다. 그래서 생명살림의 운동은 <작은 불편함을 즐기는일>이 되어야 한다. 즐거워야 오래 할 수 있다. 내가 즐거워야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져 퍼지고 넓어진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퇴물심을 내려놓는 수행을 마음공부로 삼는 것이 녹색종교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 용 휘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생명평화위원장
 前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대 담 회

“모두를 위한 기후행동 : 행동하는 영성”

기후위기 시대의 종교연합운동

1. 이미 전환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인 팬데믹, 역사책에서나 봤던 괴질을 현실로 마주하면서 고통스런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코로나는 진정되기는커녕 점점 더 확산일로에 있다.

이 중에서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후변화이다. 최근의 세계적인 홍수와 가뭄,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는 대부분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다. 최근 유럽은 150년 만에 최악의 폭염으로 약 3만 5천 명이 사망했으며, 인도는 50도가 넘는 폭염으로 약 1500명이 사망했다. 2010년 일본에서 쓰나미로 원전이 폭발되어 2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으며, 중국과 브라질, 파키스탄은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로 수천 명이 사망하는가 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아프리카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며 영구동토층이 감소하고 있으며, 제트기류의 이상과 바닷물의 열 순환이 방해받고 산호초가 멸종하고 있다. 그리고 북쪽 수림대와 아마존의 밀림도 감소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지난 100년간 약 1.2도가 상승했으며,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2006년 발표된 영국 정부의 ‘기후변화의 경제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1℃ 오를 경우, 안데스 산맥 빙하가 녹으면서 이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던 약 5000만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으며, 매년 30만 명이 기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지구의 온도가 3℃ 오를 경우 아마존 열대우림이 붕괴되고, 최대 50%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며, 4℃가 오르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가 사막으로 변하고 북극 툰드라의 얼음이 사라져서 추운 지방에 살던 생물들이 멸종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5℃ 오를 경우 히말라야의 빙하가 사라지고, 바다 산성화로 해양 생태계가 손상되며, 뉴욕과 런던이 바다에 잠겨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평균기온이 6℃ 오를 경우 인간을 포함해서 현재

생물종의 90%가 멸종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 『2050년, 거주불능 지구 -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21세기 기후재난 시나리오』를 쓴 데이비드 윌러스 웰즈는 미래에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것은 ‘기후변화’ 때문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의 추세대로 간다면 2050년에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지표면의 30% 이상에서 극심한 사막화가 동반된다고 한다. 지구 곳곳에서 산불, 폭염, 가뭄, 침수 등의 이상기후를 겪을 것이고, 강우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엘니뇨 현상이 만연할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 기후재난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려는 새로운 유형의 ‘기후난민’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폭염이 1년에 100일 이상 지속될 것이고, 전 세계 곡물 수확량의 80%가 감소할 것이며, 더불어 만성적 물 부족 문제에 처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간 식량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UN은 2050년에 기후난민이 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생존에 취약한 빈민층이 10억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IPCC(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가 2도 상승하는 경우 1.5도 상승할 때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인구가 약 1억 5000만 명 더 늘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결과를 예상하고도 국제간의 협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7년 기후변화협약을 담은 교토의정서가 무색하게 이후 20년 동안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또한 2016년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유지하는 파리기후협약에 195개국이 동의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심지어 미국은 이 협약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기도 했다.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미국인데도 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경제성장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는 결국 경제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생태계 파괴의 현상적

원인은 이산화탄소의 과다 방출, 초국적 중자회사의 농간, 부도덕한 기업의 불법적 행위들로 볼 수 있지만, 더 근본적 원인은 결국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가리지 않고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의 성장이데올로기, 시장원리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확장을 동력으로 존속되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연과 노동을 착취해 왔다.

2. 이제 성장에서 성숙으로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라는 작은 책을 쓴 오리건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존벨라미 포스터는 환경과 경제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자본주의 출현과 더불어 인간은 자기 주변의 모든 것, 즉 토지와 자연자원 그리고 인간 자신의 노동을 시장에서 이윤을 낳을 잠재적 상품으로 간주하면서” 광범위한 환경파괴가 이루어졌음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실제로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 -사실은 발견이 아니고 점령이었지만- 이후 얼마나 많은 인디언 원주민을 학살하면서 땅을 뺏고, 그 땅과 그 땅에서 살아왔던 온갖 생명들을 착취하면서 환경파괴를 자행했는지 모른다. 고급 모피를 얻기 위해 수천만 마리의 수달과 비버, 여우가 죽임을 당했으며, 숲은 파괴되었고, 지역민들이 먹을 곡물을 재배하던 땅에는 설탕을 생산하기 위해 사탕수수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엄청난 규모의 플랜테이션, 농장이 건설되었다. 그 과정에서 땅은 황폐화되고 원주민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났으며,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의 노예를 들여왔다.

본격적인 산업혁명 이후의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은 말할 것도 없다. <왕자와 제비>라는 소설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즈는 쓰라린 시간들(1854)이라는 소설에서 당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마을의 높은 굴뚝에는 그칠 줄 모르는 뽕 불꽃 같은 연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뿜어 올랐다. 그 마을엔 검은 운하가 있었고 지독한 냄새가 나는 염료로 자줏빛으로 변한 강이 하루 종일 흐르고 있었다.”

그 이후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본격적인 식민지 개척으로 이어진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제3세계 민중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생태계파괴와 환경오염을 자행했다. 1980년대에 와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것 역시 또 다른 방식의 경제적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놔두고 환경문제를 논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문제를 경제문제, 사회문제와 별개로 보는 안 된다. 환경문제는 사회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환경문제는 경제성장파 산업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으며, 그 과정에서 역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전쟁, 제3세계의 저발전이라는 사회문제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재편 없이는 사회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는 생태적 위기를 해결할 길이 없다. 기후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탄소가 아니라 자본주의이며, 자본주의가 바뀌지 않으면 기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리하게 꿰뚫으며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역설하고 있는 나오미 클라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나는 기후 변화가 여러 경로를 통해 긍정적인 전환을 추동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는 지역 경제를 재창조하며, 민주주의에 족쇄를 채우는 기업의 영향력을 분쇄할 뿐 아니라 막대한 피해를 낳는 새로운 자유 무역 협상을 봉쇄하고, 대중교통과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 등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낸다. 또한 에너지와 물 등 필수적인 서비스 산업의 공공 소유권을 되찾고, 취약해진 농업 시스템을 건강하게 복구하고, 기후 변화의 충격으로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주민들에게 국경을 열어 주고, 토지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등, 각 나라는 물론 모든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위험한 수준의 불평등을 없앨 수 있다.¹⁾

나오미 클라인은 기후 변화가 오히려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이 위기 속에서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빈부 격차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을 되살리는 정책들을 진전시킬 기회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대안은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삶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정치도 중앙정부 주도의, 그리고 대의적 민주주의에서 지방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마을과 자치, 공동체 중심의 직접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또한 경제는 성장이데올로기를 포기하고 ‘탈성장’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신 협동조합이나 로컬시장 등 지역자립의 민본경제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과 국가와 지역자립의 민본경제가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야

1) 나오미 클라인 지음, 이순희 옮김,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 자본주의의 대 기후』, 열린책들, 2016, 29쪽.

할 때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민자치기본법과 기본소득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다시개벽'과 행동하는 영성

수운 선생의 '다시개벽'은 '근본적 전환'에의 메시지였다. 그냥 전환이 아니라 문명적 전환, 우주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한 메시지였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온갖 신분적 차별과 멸시와 굶주림에 짐승처럼 살던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나눠 먹고 모든 존재가 하늘로 존중받는 세상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한 사상이었다. 수운 선생이 '다시 개벽'을 부르짖은 이후로 동학·천도교는 '개벽'을 문명적 차원에서 '삶의 양식의 전면적 전환'으로 받아들이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선 문명운동적 차원에서 '개벽운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해방공간에서 천도교청우당은 '소련식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도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도 넘어선 '신한국적 민주주의'를 통한 '통일국가건설'을 위해 고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역시 서구 근대문명을 넘어 새로운 문명을 열어내고자 하는 '개벽운동'이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 그리고 기후위기는 이미 지구적 차원에서 전환이 시작되었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이 징후를 잘 포착하여 우리 문명도 이제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한다면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징후를 잘 포착하지 못한다면 인류 앞에는 절멸적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에게겐 우주와 인간, 생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 아니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의식의 혁명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사회 지도층, 특히 종교 지도자와 기득권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종교는 오히려 권력에 기생하고, 성장주의에 동조하며 자체 몸집을 키우는 데만 급급했다. 이제라도 종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자기비움의 영성에 바탕하여 내면의 신성을 회복하고, 모든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명의 전일성에 대한 통찰을 통해, 삶의 가치관을 물질주의가 아니라 자아완성과 사회적 실천에 두는 혁명적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양극화도 해소되고 생명과 생태계 파괴의 절멸적 위기도 극복하면서 비로소 품격 있는 문명적 대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희망은 이번을 계기로 문명적 대전환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을 국가나 기업,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먼저 종교인이 앞장서서,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생태적 문명, 도의적 신 문명을 열어내어야 한다. 이제 '행동하는 영성'이 필요하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문명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설마' 하다가 공멸의 길로 갈 것인지, 그 엄중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서 있다.



정 선 희
 (사)한울안운동 사무국장
 원불교 여성회 사무국장

사례 발표

“환경계문을 통한 종교인의 기후행동: 원불교 여성회의 ‘함께살림운동’ 사례”

1. ‘함께살림운동’ 개요

‘함께살림운동’은 원불교여성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해(2020)부터 전개하고 있는 기후행동 슬로건이다. 원불교여성회는 25주년 기념사업으로 자신과 세상을 위한 100일 기도를 기획했는데, 어떠한 주제로 기도를 올릴 것인가를 논의하던 중 코로나19로 그 심각성이 피부에 와닿게 된 환경이슈를 신앙의 차원으로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기도를 올리자고 결의하고 2020년 7월 16일에 결제식을, 10월 24일에 해제식을 가졌다. 이 기도에는 총 5,169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 기도는 ‘실천’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기도문에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10가지 다짐이 포함되었는데, 이 다짐을 일상생활에 더욱 밀착하여 실행하도록 상시일기로 기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앱)을 개발했다. 그리하여 100일의 기간 동안 10가지 조항의 실천을 목표로 하는 기도를 시행했다.

2. 종교인과 계문

위와 같은 내용의 환경실천운동은 종교인에게 특히 의미가 있는데, 인류사회의 거의 모든 고등 종교에서는 계율(precepts)이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성직자는 물론 일반 교도 모두가 지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불교는 기본적으로 10계가 있는데 출가자에게는 더욱 세분화 되어 구족계, 재가자는 좀 더 단순한 5계의 의무를 갖는다. 기독교에는 야훼가 모세에게 전한 10계명이 있다. 이슬람교에도 마호메트가 받은 12계율이 있다. 원불교에는 30계문이 있는데, 보통급특신급법마상전급의 범위등급에 따라 각 10조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계를 받아서 지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마치 길들여지지 않고 자행자지(自行自止)하는 마음과 행동에 어떤 원칙과 표준을 받아들여 각고의 노력으로 신앙을 완성하겠다는 다짐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시는 「(전략) ...사람이 혼자만

생활한다면 자행자지하여도 별 관계가 없을지 모르나 세상은 모든 법망이 정연히 벌여 있고 일반 사회가 고루 보고 있나니, 불의의 행동을 자행한다면 어느 곳을 향하여 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는 일동 일정을 조심하여 엷은 얼음 밟는 것 같이 하여야 인도에 탈선됨이 없을 것이며, 그러므로 공부인에게 계율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하노라」(원불교전서 대중경 제2교의품 25장) 라고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삼세업장을 녹이기 위해 주세성자가 내려주신 계문을 일일이 지키는 노력을 기후행동 실천에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야말로 인류의 성자들이 가장 강조하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탐진치와 멀어지는’ 신앙수행의 길이 아닐까 한다.

3. 환경계문 10조 (함께살림 10가지 실천서약)



▲ 스마트폰 어플

‘함께살림운동’의 환경계문 10조는 다음과 같다.

1. 에어컨과 보일러같은 냉난방기 사용을 과도하게 하지 않기
2.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3. 물사용을 줄이고,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
4.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5.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6.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지키기
7. 화학제품을 덜 사용하려고 노력하기
8.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과하게 사지 않기
9. 나에게 넘치는 물건은 이웃과 나눠 쓰기
10. 이외에 실천서약 1개를 더 정하여 지키기

4. 휴대폰 어플 챌린지

원불교의 수행법에는 ‘일기법’이 있어서,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계문의 범과 유무를 기록하는 상시일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에 ‘함께살림운동’의 환경 10계문 역시 이러한 상시일기에 접목하여 ‘유무념 대조’ 식으로 10가지 항목을 매일 기록할 수 있는 휴대폰 어플을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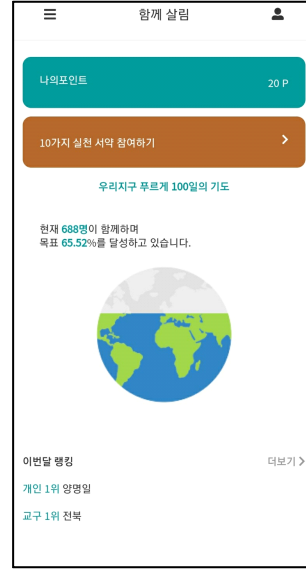
이 어플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챌린지’ 방식을 사용하였다. 즉, 참가자들이 자신의 실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면 그 기록이 포인트로 전환되고, 이렇게 모은 포인트를 원불교여성회와 (사)한울안운동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기부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챌린지 참가자들은 매일 1회, 주최측이 정한 10가지 항목에 대해 유무념으로 실천대조를 하고, 이에 따른 보상(항목당 10포인트)을 받았다. 인증사진을 첨부하면 최대 3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하루에 300포인트까지 적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챌린지를 7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했다. 제1기의 목표 인원은 1,000명이었으나 688명으로 마무리 되었고, 이들이 기부한 포인트는 6,293,720포인트이다. 이 포인트는 환경실천운동, 원불교여성회, 인도 델리 방과 후 교실, 인도 청소년 장학 사업으로 기부되어 사용되었다.

제1기 챌린지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 원불교여성회는 목표인원 1000명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2021년도에 다시 제2기를 모집하여 목표에 재도전하기로 했다. 특히 이 이벤트를 하며 코로나19를 통해 대두된 환경이슈에 대한 적극적 공부와 연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2021년에는 실천운동과 함께 스타디모임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참가자들 내부에서 적극적 변화와 대응의 움직임이 성장하는 부수적 결과까지 얻었다.

원불교여성회와 (사)한울안운동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응원하며 2021년의 <한울안 아

카데미>에 이러한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환경실천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만들



▲ 스마트폰 어플 초기화면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 안드로이드용 QR코드



▲ 아이폰용 QR코드

5. 제언

‘환경 계문’은 종교의 울을 넘어 인류가 다 함께 실천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특히 기술의 발전으로 쉽고 간편하게 계문 체크를 할 수 있으며, 인지의 발달로 ‘재미’가 추가되었고(챌린지 방식), 여기에 포인트 적립을 더해 2차적 선행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원불교 여성회의 실험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기는 하지만 원불교라는 작은 종단의 한 재가단체에서의 실험이었기도 하다. 그러니 좀 더 많은 종교인들이 해당 종교의 ‘계’를 실천하며 환경 계문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종교연합’의 기후행동을 꿈꿔본다.

기후행동은 강렬한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훈습(薰習)’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된다. 어떤 향이 몸에 배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기간의 반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의 계문을 활용하듯 환경 계문을 활용하는 종교인들이 되기를 기원한다.



원 현 장
원불교 인도 델리교당 교무

사례 발표

“인도 라다크 에코 투어리즘 실천 사례”

1. 라다크 소개

라다크는 히말라야 산맥 해발 3,600m 고지에 위치한 인도 북부 지역입니다. 동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국가안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다크의 인구는 289,000명 (2020년 기준)이고, 면적은 약 86,000제곱 킬로미터로 남한보다 약간 작으며, 히말라야 고산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47년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해방되자 라다크는 잠무 카쉬미르 주에 70여년 넘게 속해 있다가, 2년 전인 2019년 8월 5일 잠무카쉬미르 주정부로부터 분리되어 현재는 Union Territory (연방직할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1974년에 외부인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라다크는 히말라야 설산을 배경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구한 전통문화가 순수하게 보존된 지역이었습니다. 1974년에 라다크를 처음 방문한 외부인은 527명인데, 그 중 500명은 외국인, 나머지 27명은 인도인이었습니다. 그 후로 관광객은 매년 증가되고 2018년 한해엔 327,000명이 방문 했습니다. 라다크 인구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한 해에 방문한 셈입니다.

라다크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라는 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은 1992년에 초판이 나온 이래로 50여 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라다크는 히말라야 설산을 배경으로 한 청청한 자연 지역으로, 라다크인들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면서 오랜 전통과 문화를 조화롭게 유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고원지대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유가 있고, 자급자족 생활을 위주하 하면서 ‘경쟁’ 없이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였습니다.

특히 티베트보다 더 티베트의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라다크인들은 독실한 티벳 불교 신앙으로 척박하고 황폐한 불모지에서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공유하며 살아 왔습니다. 5개월간의 짧은 여름은

7개월간의 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품앗이 구조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긴 겨울은 결혼, 축제, 행사 등을 즐기면서 문화와 전통을 향상시키는 시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라다크인들에게 춥고 긴 겨울은 지루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서로가 가까워지는 교류의 기회였고, 깊은 신앙과 수행을 하는 도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라다크가 개방되기 전까지는 생활 쓰레기라는 것은 아예 없었고, 비닐 봉지와 플라스틱 물병 같은 것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 먹이나 비료로 사용하였고, 의류는 재사용되었으며,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나 천연 재질의 그릇을 사용했고,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2. 라다크의 현실

1974년부터 라다크가 외부에 개방되면서 자연과 함께 사는 삶, 더불어 사는 삶, 자급자족의 삶,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삶은 균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업으로 자본이 들어오면서 품앗이가 깨지고, 남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경쟁 사회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위기 상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화의 문제들

- **호텔, 게스트 하우스와 같은 관광 시설의 과다 건축**
라다크의 수도 레(Leh)를 중심으로 관광업에 투자하면서 전통적으로 농사짓던 땅을 호텔, 게스트 하우스, 쇼핑 샵, 식당 등의 관광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라다크의 자연 환경에 맞지 않은 건축 재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라다크의 전통, 문화 그리고 자연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년 25-30개의 숙박 시설이 새로 등록되고 있고, 2017년 현재 826개의 호텔과 게스트 하우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로 지은 집에서 충분한 난방 시설 없이 영하 20-30도의 춥고 긴 겨울을 지내는 것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라다크의 환경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구조가

됩니다. 짧은 여름의 관광 시즌을 위해 과다하게 건축된 시설과 서양식 화장실 등은 라다크의 자연환경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텔, 게스트하우스, 식당에서 물이 과다하게 필요하면서 지하수 개발의 남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mm 남짓한 1년 평균 강우량도 매년 줄어 들고 있습니다. 2016년에 라다크를 방문한 관광객은 23만 명인 반면 그해 강우량은 20.9mm였습니다. 상하수도가 없는 레(Leh) 시내에 밀려오는 관광객들의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다크 사람들의 일일 평균 물 수요는 여름에는 1인당 21리터이고 겨울에는 10-12리터 정도 됩니다. 반면에 관광객의 일일 평균 물 수요는 1인당 75리터라고 합니다. 2017년에 등록된 숙박 시설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 보면 14,000개의 방에 2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 인원에 필요한 물의 양은 하루에 200만 리터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전방 5km 중심에 2,000개의 지하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다크가 관광화에 치중하면서 과다하게 세워진 관광업소들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농업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레(Leh)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화의 문제들

- 지하수 오염과 개발 그리고 기타 문제들

도시인 레(Leh)와 카르길(Kargil)에는 서양식 화장실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요즘은 시골에도 서양식 화장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강우량은 얼마 되지 않은데 집집마다 호텔마다 화장실을 설치해서 어마어마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이 없이 정화조로 처리되는 물은 땅속으로 흘러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오염된 물로 인해 피부병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다한 지하수의 개발은 자연 호수를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 호수와 그 인근 지역에 서식하는 조류와 야생동물 및 야생화가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이농(離農) 현상으로 인구가 레와 카르길 같은 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생활 쓰레기, 식수, 배수, 교통 혼잡, 매연, 소음, 차량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 그리고 좁은 주차 공간으로 인한 이웃과의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레와 카르길 같은 도시에서 차량 수요가 늘어나고 짧은 거리도 차량을 이용하는 생활이 습관화가 되니 주민들 사이의 트러블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해도 라다크에서 볼 수 있는 병은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혹독한 겨울로 인한 무릎,

어깨 등의 질병, 먼지와 밥을 할 때 생기는 빨감 연기로 인한 눈병 등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라다크에는 없는 병이 없을 정도입니다. 심장병, 갑상선, 전립선, 피부병, 영양실조 등등. 심지어는 암과 에이즈 같은 불치병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먼 거리가 아니면 어디를 가든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건강도 유지되었고, 자연도 보호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에서 여성 및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착취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의 부작용

라다크의 젊은 사람들은 너도나도 할 것없이 라다크를 벗어나 타 지역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라다크의 교육시설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라다크 사회에 '경쟁심'이 생겨 라다크를 떠나는 경향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집 자녀가 타 지역에 유학을 가니 우리 집 자식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부모의 의식과, 친구가 가는데 나는 왜 못 가나 하는 본인의 태도가 트랜드가 된 듯합니다. 유학을 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뚜렷한 목표와 분명한 목적 없는 유학은 실패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난 삶은 전통 문화와 멀어지게 되고, 자기 전통도 모르는 채 타 지역과 서양문화를 접하면 삶의 모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라다크에 사는 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불과 15년 전만해도 인도의 수도에서 라다크를 연결하는 비행기는 하루에 한대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델리를 비롯한 인도의 다른 도시와 라다크를 연결하는 비행기 수는 하루에 10대가 넘습니다. 관광업에 뛰어드는 사람 중에 70-80%가 젊은 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은 가이드, 기사, 짐꾼, 숙박 운영 및 트레킹 안내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광객들과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마약과 술, 담배를 배우고, 모르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에이즈 같은 질병도 옮깁니다. 현재 라다크 사회의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젊은이들의 마약과 술 중독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휴대폰과 같이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주는 제품들의 최신 제품을 소유하려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남보다 먼저 최신 모델을 구입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년설산 히말라야와 주변 청정지역의 파괴

지금까지 살펴본 "라다크의 관광화, 도시화, 경쟁화"라는 변화 속에서 가장 큰 위기는 자연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는 '만년설산'이라는 뜻인데, 라다크 사람들은 이 계곡에서 흘러 나오는 물에 의존하여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라다크인들에게 히말라야는 생명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시는 물을 포함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은 물론이고 농사도 설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합니다. 하지만 등산과 트레킹을 하면 높은 산까지 올라 가게 되고, 만년설산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설산까지 올라가서 휴지, 비닐봉지, 생활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소변도 해결하면서 물을 오염시키고 자연환경을 파괴합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식수로 마시고 요리할 때 쓰는 물이 이제는 관광객의 대소변으로 오염되어 예전같이 사용하기 꺼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염지로는 레 근교에 자리한 스톡 캥그리(Stok Kangri)를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청청하다고 여겨진 만년설산의 물은 오염되어 마을 주민들이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를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라다크의 강수량을 계산해 본 결과, 4년 연속 50-80%가 감소되었습니다. 1973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인도의 온도는 1도가 올라간 반면에 라다크의 온도는 3도나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라다크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환경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의 양의 감소로 인한 만년설산의 감소는 라다크의 자연과 지구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전후로 라다크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주로 외국인였고, 그 숫자도 매년 2만 5천에서 3만명 사이였습니다. 2009년에 라다크의 유명한 판공초(호수)에서 촬영한 '세 일간이'라는 인도 영화가 히트를 치면서 인도의 관광객들도 방문하기 시작하였는데, 청정한 호수를 방문한 인도 관광객들은 물에서 목욕하거나 세차를 하고,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섭취한 후 페트병이나 남은 음식물을 호수에 버리는 등, 호수를 오염시키는 주변이 되었습니다. 판공초의 단골 철새인 단정학(black neck crane)이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주변에 있는 작은 호수에서는 상당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판공초로 가는 도중에 야생식물이나 야생동물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마모트(marmot)입니다. 다람쥐 같이 생긴 마모트는 원래 야생화를 먹고 사는데, 관광객이 사진을 찍기 위해 과자를 주기 때문에 도로에 차만 나타나면 몰려 나오다 차에 치어 숨지는 일이 허다 합니다. 과자를 섭취한 마모트는 털이 벗겨지거나 피부병에 걸리는 등, 안타까운 장면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3. 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행동 - 에코투어리즘의 시작
라다크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라다크 사회의 주춧돌이자 미래의 주인공인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단법인 <한울안 운동>의 도움으로 '라다크 청년들의 전문 가이드 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KGL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3년동안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라다크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행동'의 실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라다크의 관광업 지향성을 '에코 투어리즘'으로 전향시켜, 일자리를 찾는 라다크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라다크의 전통과 문화, 주변 환경과 생태를 보호하고 보존해야 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건강한 라다크 사회를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는 전문 가이드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라다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가이드 육성 프로그램> 소개

1) 프로그램을 하게 된 경위와 그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

- 가. 왜곡된 정보의 방지
- 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의 보존
- 다. 청년 일자리 창출
- 라. 여성 전문가이드 육성

가. 왜곡된 정보 방지 - 앞서 언급했듯이 대다수의 라다크 청년들은 라다크를 떠나 타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여름 방학인데, 이 때 고향인 라다크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시즌이라서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부모와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청년들은 라다크의 문화와 전통을 자주 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양과 인도의 다른 지역 문화를 더 가까이 접하며 살아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름 방학에 라다크에 와서 가이드를 하면 라다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적어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 데에도 한계를 느낍니다. 때로는 왜곡된 정보도 제공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한번은 한국에서 방문한 손님들을 모시고 라다크의 유명한 사원 중의 하나인 라마유루 곤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릴 적 절친이 스님이 되어 그곳 주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은 관광객을 모시고 온 가이드 청년들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자주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혹시 기회가 되면 청년들에게 라다크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한울안 운동의 도움으로 그것을 현실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나. 자연환경과 라다크 전통문화의 보존

생활 환경적으로 라다크는 매우 취약합니다. 면적은 거의 남한만 하지만 인구는 30만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1974년부터 외부인들이 라다크를 찾아 오면서 라다크도 현대 문명의 물결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황토 대신 시멘트로 집을 짓고, 현지에서 재배한 보리와 밀로 만든 전통 음식보다 인도 타 지역에서 가져온 쌀을 섭취하고, 가축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전통 옷 대신

텔리나 몸바에서 만든 패션 의복을 입고, 자급자족한 농사 일보다 관광업에 종사하면서, 라다크의 삶의 양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라다크의 수도 레는 불과 25년 전만 해도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라다크의 여느 마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의 레는 거의 모든 논이 호텔과 게스트 하우스로 변했습니다. 호텔과 게스트 하우스, 그리고 식당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차량은 많아지며, 농촌에서 도시로 이민오는 사람들은 날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보다 풍요롭고, 살기는 좀더 편안해졌지만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그리고 라다크인들의 건강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다크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의 보존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절박한 당면과제가 되었습니다.

다. 청년 일자리 창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온 사람들, 고향 라다크를 떠나 외지에서 공부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막상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없습니다. 농사일은 배우지 못했고, 설사 좀 배웠다 하더라도 학위를 취득한 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맞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위를 취득했다고 해서 모두가 공무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가이드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가이드 교육을 받아, 관광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 삶의 터전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라다크의 문화, 전통, 의식주, 환경, 생태와 건강에 대한 폭넓은 교육을 제공하면서, 본인의 전공과 현실에 맞게 다양한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최근에 라다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과 술 중독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 마약과 술에 위험성, 사회에 끼치는 영향, 마약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극복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켰습니다. 아울러 가이드가 올바른 생각과 실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더욱 조심하고 애정을 갖게 되어 라다크를 보호한다는 사실도 집중적으로 교육했습니다.

라. 여성 전문 가이드 육성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전문직에 종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설령 종사한다고 해도 어려운 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라다크는 그나마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가부장적 사고는 적지만, 아직까지는 여성들의 가이드 활동을 아주 이상하게 보는 편입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도 가이드를 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육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젊은 여성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격려를 하여, 남성들 못지 않게 여성들도 사회 발전과 지역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여성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라다크 에코투어리즘을 위한

<전문 가이드 육성 프로그램> 내용과 참가자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실시한 프로그램에서 약 1,054명의 젊은 라다크 청년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 중 약 500명은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라다크 에코 가이드 육성 프로그램에서 라다크의 전통문화, 역사, 자연환경, 생태환경 보존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건강 관리, 즉 고산병의 예방, 증상, 대체 그리고 응급치료에 대한 자세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가이드 교육뿐만 아니라 택시와 버스 기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라다크의 미래이자 주인인 젊은이들은 라다크의 자연과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보존하며 보호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손님을 모시고 다닐 때 매우 중요하고, 쉽게 관리해야 할 일 중 하나 쓰레기 처리입니다. 등산과 트레킹을 갈 때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가는 방법, 특히 트레킹은 보통 몇 주씩 이뤄지기 때문에 가져온 물건들, 가령 물병, 과자 포장지, 캔, 플라스틱 등을 그대로 가져가서 레나 카르길 같은 도시에서 분리 처리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의 반응

3년 동안 참가자들의 피드백은 그냥 만족이 아니라 '매우 만족'이었습니다. <한울안 운동>의 에코 가이드 육성 프로그램은 라다크 가이드 교육에서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가이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라다크 문화와 사원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내용을 갖춘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한울안 운동>의 에코 가이드 육성 프로그램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라다크의 전통, 문화, 풍습, 역사, 종교, 언어, 환경, 생태, 야생동물, 야생화, 그리고 고산병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및 대책, 아울러 이론에서 배운 것을 바로 현장 학습으로 이어지게 하는 실천 수업, 여기에 올바른 가이드의 자세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2주 동안 단계별로 젊은이들을 교육시킨 결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라다크에 대해 상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난생 처음 배웠다는 피드백이 가장 많았습니다.

4. 결론

3년 동안 실시한 교육으로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에서부터 젊은이들의 생각과 시각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인도의 다른 지역보다 아직은 물이 깨끗하고 공기가 청정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라다크 사회는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정신문명을 가꾸어 왔던 역대 조상들의 노력이 라다크의 전통문화와 풍습, 그리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해 온 것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이러한 내용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현대문명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후대에게 받은 자연 그대로를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협심 협력하여 오늘날 지구가 처한 기후위기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기후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지구적 대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 미 호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사례 발표

“그리스도인의 생활영성훈련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영성훈련²⁾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은 물론 기후 위기로 혼란스럽다.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온도가 1도가 상승해 살인적 폭염과 폭풍, 가뭄과 홍수, 산불, 해수면 상승뿐 아니라 식량문제와 서식지 파괴로 인한 종의 멸종,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전파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이대로라면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195개국 약속을 다 지켜도 머잖아 3도까지 올라가 지구 회복력은 완전히 상실될 수 있다. 기후 과학자들이 내놓는 위기 예측을 보면 기온이 오르면 북반구 영구동토층의 메탄가스와 고대 바이러스까지 나와 코로나 이상의 재난이 몰려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은 이제 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안타까운 건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걸 최대한 사용할 생각뿐이다. 상처 입은 채 절멸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구는 안중에 없다. 지구 생태용량에 맞는 삶은 물론 사회시스템의 전환이 시급한데, 삶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싶지 않다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냐며 행동을 미루고 있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의 배출 증가율을 멈춘다 해도, 지구 기온이 최소 1,000년간 계속 높아지고, 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완충장치인 바다와 숲의 기능은 벌써 사라져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태도를 바꾸어 함께 대처해야 하는데,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에 분명 이상이 있다.

어떻게 하면 위기를 인식하고 변화를 줄 마음을 먹게 될까? 변화의 조짐은 위기를 인정하는 순간 일어난다. 물론 위기를 인정하더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편리함에 주저하면서 적당히 실천하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태초의 에덴동산 이야기는 물론 경험상 익히 알고 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기후 위기의 풍랑 앞에서, 주님은 우리더러 지금 ‘담대히 물 위를 걸어오라’(마 14:29) 하신다. 위기를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 어린 사랑으로 마주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 “너와 네 후손이 잘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신30:19) 외치시며, 혼자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함께 오라고 손짓하고 계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으니”(마 18:20) 함께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은 물론 공동체의 방향과 목표를 바꾸어 행동하라고 애타게 부르고 계신다.

부르심을 듣고도 무엇부터 마주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이 된다면, 가장 크게 고통받고 또 사라져간 생명을 찾아 마주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늘 그렇듯 기후 위기도 약자가 더 취약하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어른보다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더 취약하다. 동물도 온도변화에 민감한 양서류가 포유류보다 더 빨리 멸종한다. 상황이 나빠질수록 그들의 고통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우선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막8:17) 하시는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고요히 머물러보자. 나와 우리의 위기에 대한 감각을 깨어날 것이다. 나 자신과 가까이 있는 이들 가운데 기후 위기로 고통받고 있거나 이미 사라진 생명의 죽음은 없는지 고요히 묵상하되,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더불어 각자가 들은 피조물의 소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로써 위기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면, 고통 중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보내는 구조신호임을 알게 될 것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또한 나뿐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가 겪고 있는 고통임을 깨달아 행동하게 될 것이다. 혹여 일찍 인정하고 공감했다더라면 하는 후회가 일어난다고 해도 미련을 두지는 말자. 후회한들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일 뿐이다. 2000년부터 4%씩 줄이면 될 것을, 이제 18%씩 줄여야 한다고 하니, 더 담대히 마음으로 함께 줄여가면 될 것이다.

2) ‘활천사’ 2021년 3월호에 기고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며, 피조물의 고통과 더불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면, 지구회복을 이루어갈 지혜와 능력은 더하여질 것이라 믿는다. 믿고 나아가기 위해, 한 달에 한 주일, 가능하다면 매월 첫 주일을 '지구 묵상 주일'로 지키거나,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기도회 때 단 15분이라도 '지구를 위한 시간(Christian Earth Hour)'을 정해 침묵으로 기도하는 건 어떨까? 기도는 하나님은 물론 신음하는 이웃과 피조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우리 자신의 실천을 늘 점검하게 해줄 것이다.

또 지구회복을 위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신음하는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롬 8:21)를 누리게 하는 힘을 더하여 줄 것이다. 만약 지구를 위한 중보기도 중에, 자신이 속해 있는 소모임이나 교회(학교)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삶과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 - 그달 그달의 환경력에 맞춘 생명 살림의 실천³⁾을 전개한다면 보다 분명하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일상의 각 영역 즉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동할 때는 물론, 산업과 발전 그리고 산과 강과 바다를 개발하면서 배출해온 온실가스를 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탄소제로의 목표와 실현방안을 찾아 계획을 세우는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계획한 대로 실행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나, 신앙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모두의 집인 지구 역시 회복력을 얻게 될 것이라 믿는다.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단 한 번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대로 신앙공동체 안에서 '지구돌봄서클'로 모여 위기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진행안내도 blog.naver.com/ecochrist/222096167041)

위기는 위기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구성원들과 더불어 원으로 둘러앉아 생각과 감정을 나누다 보면, 서로 신뢰하며 지지하는 공동체로 자라갈 것이고, 지구를 어떻게 함께 돌볼 수 있을지 마음을 열어 찾게 될 것이다.

3) 그 달의 주제와 연결된 성경구절, 기도문 등의 자료는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 1월(눅 12:29, 지구가족의 날), 2월(약 5:10~11, 습지의 날), 3월(겔 47:9, 물의 날(3/22), 은총의 선물 물), 4월(눅 13:19, 종이 안 쓰는 날(4/4), 지구의 날(4/22), 반려식물), 5월(창 1:22, 생물 다양성의 날(5/22), 바다의 날(5/31), 충만한 바다), 6월(롬 8:19,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녹색그리스도인), 7월(고전 8:9, 롬8:21, 비닐봉지 없는 날(7/3), 플라스틱프리), 8월(시 37:5, 에너지의 날(8/22), 쉽고 힘), 9월(행 9:3, 자원순환의 날(9/6), 차 없는 날(9/22), 에너지전환), 10월(창 1:25, 세계 채식인의 날(10/1), 세계 동물의 날(10/4)/ 반려동물), 11월(히 13:5, 환경 착취 예방의 날(11/6), 아무 것도 사지 않는 날(11/29), 녹색구매), 12월(사 11:1, 세계 토양의 날(12/5), 성탄절(12/25), 그린크리스마스)

누군가 일러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정한 실천덕목이니만큼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도 수월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일회성 이벤트나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아니라 '반복해서 연습하는 일'이다. 반복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물론 교회와 사회에서 피조물이 고통받게 하는 일은 기꺼이 덜어내게 될 것이다. 함께 행동할 힘과 용기도 생겨날 것이다. 당장 필요만큼 먹고 입고 쓰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선택적으로 비워가며 부족한 이들과 나누도록 이끄는 지혜도 얻게 될 것이다.

특별히 거룩한 습관을 들이게 하려면 신앙의 절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사순절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기도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경건한 40일 탄소금식'이 진행되고 있다.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40일의 약속 프로그램인데,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지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절제하는 신앙의 절기인 사순절에 잘만 훈련하면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탄소금식은 기후 위기가 결핍이 아니라 과잉으로 발생한 것임을 기억해,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것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줄이게 한다. 탄소금식의 훈련 내용은 '매주 하나씩 7주간'⁴⁾ 실천하게 하는 것과 '하루 하나씩 주일을 뺀 40일' 동안 실천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둘 다 모두 변화를 시도해가는 데 도움을 주는 실천덕목카드(<http://blog.daum.net/ecochrist/786>)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후 위기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때론 '플라스틱 감축 생활영성훈련'을 하기도 하는데, 쓰레기 문제 역시 기후 위기와 밀접할 뿐 아니라 플라스틱 문제로 전 세계가 깊이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위기 감각 역시 원천감량 즉 쓰레기제로를 향한 걸음을 내딛게 해준다. 우리가 만들고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땅에 충만(창1:22)'해야 할 물고기와 새들이 누릴 복을 빼앗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으로 해마다 생명을 잃는 바닷새가 100만 마리, 해양 포유류가 10만 마리나 되는 것을 안다면, 작아진 플라스틱이 우리가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까지 오염시켜 우리의 몸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자신의 필요를 알아 필요만큼 누리는 삶 또한 반복해서

4) 매주 하나씩 한 주간 실천하는 탄소금식 캠페인의 실천내용은 이렇다. 1주(2/17~20) 아무것도 사지 않기, 2주(2/21~27) 일회용(플라스틱)금식, 3주(2/28~3/6) 고기금식, 4주(3/7~3/13) 전기사용량 줄이기, 5주(3/14~20) 종이금식, 6주(3/21~27) 전등 끄고, 기도의 불 켜기, 7주(3/28~4/3)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

연습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면 쓰레기제로교회(카페, 교회 리필스테이션)을 만들어 사람들이 쓰레기제로의 일상을 살도록 도울 것이다.

어떤 방식이건 자신을 훈련하는 이들 모두 '지구 이웃과 함께 하는 40일의 묵상 여행(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획, 도서출판 동연)'을 하면서 욕심껏 소비해온 삶을 회개하고 '이만하면 충분함'을 고백하는 영적 여정을 보내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 같은 '경건한 40일 탄소금식'과 '플라스틱 감축 40일 생활영성훈련'을 진행하면서 꼭 병행해야 할 것이 있다. 온 몸과 마음으로 변화하는 계절을 느끼며 창조의 빛을 맞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사순 절기는 계절적으로 경칩을 지나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다. 늘 그래야 하겠지만, 이때만큼이라도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도록 매 주일 최소 하루 이상은 충분히 걸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푸른 생명과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져봄이 좋다. 40일의 여정 가운데 매일 매일 주어지는 말씀과 창조의 빛 가운데 오랫동안 머문다면, 우리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간에 무너졌던 관계는 자연스레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겐 기회의 시간이 남아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어 함께 나아가자. 십자가에 달리시어 만물의 화해자로 부활하신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한두 사람일지라도 함께 모여 신음하는 피조물들과 함께 아파하고, 때때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의 기후 위기를 공부해보자.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진행하고 있는 '환경선교사 과정'이나 '온라인 그린스쿨', 찾아가는 '지구돌봄서클'과 '생명살림 워크숍'과 같은 교육을 활용해도 좋다. 공부하며 자신의 공동체만의 기후 행동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선포해보자. 그러다 보면 때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지구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두려움 없이 지키거나 용기 있게 증언하는 이들을 지지하게도 될 것이다.

모두가 아슬아슬하게 버티내고 있는 지구의 친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부활의 아침에 신음하는 자연과 이웃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게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지구를 최우선으로 돌보고 가꿀 수 있게 도우소서. 나와 후손과 하나님의 피조물을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게 도우소서. 아멘”

종합 토론

“지속가능한 기후행동 실천을 위한 협력 제안”

조은혜(원불교 환경연대 사무처장)/좌장

맹주형(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패널

민정희(국제종교기후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패널



조은혜

원불교 환경연대 사무처장
청소년 기후학교 담당



맹주형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
가톨릭 기후행동 운영위원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실행위원



민정희

국제종교기후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